

강북신문

강북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폐회

업무보고·조례안 처리후 8일간 일정 모두 마무리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7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2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 안심보행 기립에 관한 조례안 이 처리되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6

대 의원의 첫 특별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나 민원처리를 함께 있어 소극적이거나 불편 부담한 처리 시간 등을 조사하여 의회 차원에서 건의·제안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의뢰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제안되었으며 구성 위원 및 세부 운영계획 등을 담은 활동계획서는 자기 본회의에 부여하

여 승인 의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강북구의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6대 강북구의회 의 구성에 맞춘 홈페이지 구축 완료에 따른 보고회를 갖고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제6대 의원 소개, 주요 콘텐츠 변경은 물론 의원별 개인 홈페이지 제공으로 의정 활동을 꼭꼭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각 및 시각 장애인들도 불편없이 홈페이지를 접근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구축도 함께 완료하였다.

강북신문

강북구 리틀 야구단 단장 취임

유근성 강북구의회 의장이 7월 31일 '강북구 리틀 야구단' 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유근성 의장은 리틀 야구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한국 스포츠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취임사에서 밝히며 어떤 꿈나무들이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북신문

강북구의회, 의원 대상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 교육 실시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지난 7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전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

원의 변신원 교수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강남시 교수의 성인지 교육이 각각 1시간씩 진행되었다.



북부신문

강북구의회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지난 7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전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변신원 교수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강남시 교수의 성인지 교육이 각각 1시간씩 진행됐다.

유군성 의장, 김천시의회 의장 등 접견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7월 30일 오후1시 의장실에서 김천시와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위해 방문한 박보생 김천시장과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의 방문을 받고 양 자치단체의 발전과 의회간 협력을 다짐하는 등 환담을 나누었다.

또 유군성 의장은 7월 28일 오전 10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강북나눔플러스 행복자원봉사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 내 저소득층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7월 29일 오전 2시간 동안 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유군성 의장을 비롯해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



▲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왼쪽)이 김천시 특산물인 포도를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다. < 허성수 기자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 sungshuh@hanmail.net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은 7월 30일 의장실에서 김천시와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위해 방문한 박보생 김천시장 및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 등을 영접하고, 양 자치단체의 발전과 의회 간 협력을 다짐하

는 등 환담을 나누었다.

▲ 사진은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이 김천시 특산물인 김천 포도를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

서울경제

2010년 08월 03일 화요일
A29면 사회

서울시의회-구청장 '무상급식' 등 협의회 개최

서울시의회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등 자치구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의회는 3일 오전 세종홀에서 허광태 의장과 상임위원장, 25명의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시의회 의장단과 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시와 시교육청·구청·구의회·민간단체가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및 복지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는 물론 식재료 생산 및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조가 필요한 만큼 이를 전담할 별도의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향후 자치구와의 정책공조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의원 의정비반환 주민소송 1심 승소

민노당 당원들, 강북구청장 항소포기·의정비 반환 촉구 기자회견 가져



부당인상된 구의원들의 의정비 반환을 위해 주민소송 1심에서 승소한 민노당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당인상된 구의원들의 의정비 반환을 위해 강북구 주민들이 낸 주민소송 1심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강북구위원의 당원들과 부당인상 의정비반환 주민소송

김명성 대표 등은 지난 7월29일 오전 11시 강북구청 앞에서 1심 승소를 환영하며 강북구청장의 항소 포기과 의정비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명성 대표는

"부당인상된 의정비가 구의원들 개인의 잇속을 챙기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당인상된 의정비는 다시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의 박근은 위원장은 "강북구청장은

법원판결을 수용하고 의정비 반환을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본승 구의원은 "구청장은 법원판결을 수용하고 2억여원을 환수하여 복지·일자리 예산에 사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구 의원은 5대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연간 3,284만원의 의정비를 2008년 5.375만원으로 과도하게 인상 의결하고 1월~9월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거론한 뒤 지난 2월 '부당인상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을 진행 지난 7월14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의정비 인상이 월정수당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결정으로 무효임'이라고 밝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이 수익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강북구청장은 구민이 주어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5대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수당해당 수령액인 2억여원의 의정비를 조속히 구 예산으로 환수하여 복지·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신문

구본승 구의원, 부당인상의정비 환수 팔 건어

민노당강북구위원회, 5대 강북구의원들 상대 소송 승소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윤환)는 7월 29일 오전 11시 강북구청 본수대 앞에서 강북구청장에게 5대 강북구의원들을 겨냥해 부당인상한 2억여 원의 의정비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 관계자들은 2007년 연간 3천284만원의 의정비를 2008년 5천375만원으로 과도하게 인상시켜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받은 2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이 같은 내용으로 주민 265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해 훈계 및 주의를 받은 사실과 사법 당국에 소송도 제기해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낸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민노당은 "지난 7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의정비 인상이 월정수당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결정으로 무효임'이 명백하고 법률상 원인이 없이 수익한 부당이

득이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며 "강북구청장은 5대 강북구의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해간 2억여원의 의정비를 조속히 구 예산으로 환수에 복지·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지방선거에 당선돼 6대 강북구의회에 입성한 구본승 민노당 구의원을 비롯해 함께한 당원들은 기자회견 후 청사 3층에 있는 구청장실로 들어갔다. 비결수 구청장이 다른 손님을 접견하는 중이어서 만나지는 못했다. 대신 비서실 직원을 통해 구청장이 항소하지 말고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한 사항을 담은 봉투를 전달하고 나왔다.

5대 강북구의원들 지난 전체 14명 중 6대 구의회에 올라온 사람은 김용욱·김동식·이영심·최선 의원으로 구본승 구의원과 결리코는 관계가 없으며, 나머지 10명은 지난 6·



▲구본승 구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민노당 당원들이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출마하지 않았다. 구 의원은 이 같은 판결문을 변호사를 통해 지난날 29일 경 전달받았

다며, 2주 내로 8월 6일까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강북구청장은 미합회 항소를 포기하고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